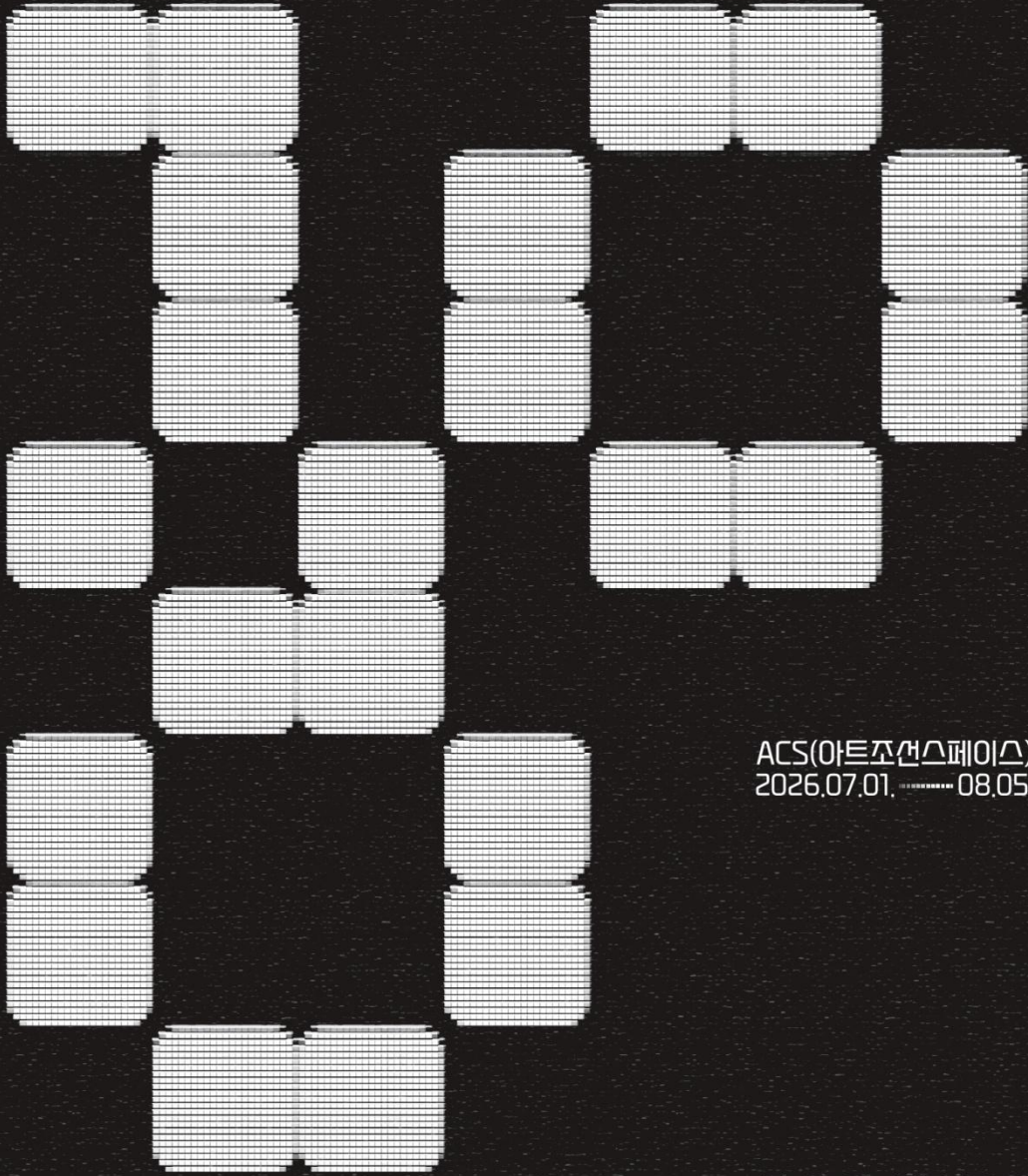


From 100 to 10
The Beginning of 100, The Final 10



ACS(아트조선스페이스)
2026.07.01. 08.05.

ASIAAF
아시아프 100

주최  조선일보 주관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협찬  LG  SK 하이닉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ASYAAF 아시아프 100

전 시 명	2026 아시아프 100
작 가	2026 아시아프 100 최종선정 100인
기 간	2026. 7. 1 ^{Wed} – 8. 5 ^{Wed} (28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 모	2026. 4. 8 ^{Wed} 오전 10시 – 4. 29 ^{Wed} 오후 3시 (21일간),
장 소	ACS(아트조선스페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주 최	(주)조선일보
주 관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협 찬	LG, SK하이닉스
입 장 료	성인 8,000원, 학생 5,000원
문 의	홈페이지 1:1 문의 asyaaf.chosun.com

1. 전시 내용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청년 미술 축제 '2026 아시아프 100(ASYAAF, 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이 7월 1일(수)부터 8월 5일(수)까지 광화문 ACS(아트조선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아시아프는 2008년 첫 개막 이래 국내 최대 청년 예술가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온 조선일보사 문화사업단의 대표 문화 행사다. 지난해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2025 아시아프'는 18회째를 맞아 누적 관람객 43만여 명과 누적 판매 작품 9,800여 점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 아트페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19회 아시아프는 '2026 아시아프 100'이라는 이름으로 100명의 청년 예술가와 함께함으로써, 더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청년 예술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아시아프에는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100명의 청년 예술가가 심사 위원 평가를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히든 아티스트(만 36세 이상)' 부문이 사라지고, 1부(20s)와 2부(30s)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20s)는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만 19세-29세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2부(30s)는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만 30세-39세 작가를 대상으로 각각 14일간 운영된다.

전시 장소 또한 아시아프 19년 역사상 최초로 조선일보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용 전시 공간 ACS(아트조선스페이스)에서 단독 개최된다. 외부 공간에서 개최되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최사가 공간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기획의 일관성과 운영의 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시아프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공간 차원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심사 방식은 1차와 2차에 나뉘어져 진행되는데, 1차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전시에 참여하게 될 청년 예술가 100인을 선정하고, 2차에서는 전시된 100인의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오로지 관람객 블라인드 투표 및 심사를 통해 1, 2부 각각 최후의 5인을 결정한다. 특히 2차 심사에서는 작가의 학력, 소속, 경력 등의 정보를 배제한 '블라인드 전시' 방식이 적용된다. 관람객은 특정 배경이나 설명 없이 오직 작품 자체만을 기준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마음에 드는 작품에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작가에게는 1, 2부 각각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200만원, 4, 5등 각 100만 원씩 총 2,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1, 2부 각각 상위 3인 총 6인에게는 조선일보가 주최하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하반기 'ACF x 파라다이스시티' 전시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ACF(Art Chosun Focus)는 국제적 무대에서 주목받는 동시대 작가부터 국내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차세대 아티스트까지 아우르며 현대미술의 흐름과 미래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프리미엄 전시형 아트페어로 이 무대에 함께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의미 있는 혜택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2026 아시아프 100'의 핵심 의도는 실제 미술 시장의 흐름을 페어 구조 안으로 직접 끌어들이 작가들이 전시장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후 갤러리 입성과 컬렉터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프 100은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이 단순한 전시의 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